

세월호 수색 보름째... 미수습자 언제쯤 찾나

선체조사위 설치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3명으로 조직 구성...6월말부터 진상규명 본격화 목표 찾은 해수부장관 "석달내 수색·수습 마무리"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미수습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수습자들이 머문 객실과 가까운 곳에서 유류품이 나오면서 미수습자들도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배 안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선체조사위원회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김장준 선체조사위원장은 "시행령 의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직제 편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라며 "현재 있는 선조

위원 8명(상임 3명) 외에 조사 1~3과, 운영지원과 등 50명 규모의 조직 구성을 6월 말 완료하고, 선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선체조사위의 정원을 위원장 1명(장관급)과 부위원장·상임위원 2명(차관급), 별정직 35명, 일반직·특정직 15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실무적인 위원회 사무처에는 운영지원과와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둔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선체를 비롯한 각종 증거물 수집과 분석, 조사를 직접 담당한다. 조사2과는 미수습자 수색과 유류품 분석관리, 수습후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조사3과는 세월호 선체처리(보존검토 포함)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희생자 가족을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방안 검토와 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령은 특별법의 증인 보호규정을 구체화했다. 특별법은 '누구든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목포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3개월 내 세월호 A·B·C 데크의 수색과 수습·선체 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A·B 데크의 진출입로가 상당부분 확보됐고 기술적으로도 확인됐다"며 "7~8개조가 매일 투입돼 작업이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어 미수습자를 발견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와도 되지 않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A·B·C 데크에서 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화물칸 등 수색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가능한 그렇게 되지 않고 수색·수습이 완료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수습본부는 이날 세월호 3~4층 31개의 수색구역 가운데 6개 구역에서 장애물을 치우고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4층 선수와 중앙의 4개 구역, 3층 선수와 우현의 2개 구역에서 평균 1.2~3.0m로 쌓인 진흙과 장애물을 들어내고 신중하게 수색을 벌였다.

또 4층 선미 진입을 위해 5층 천장을 절단하는 작업을 사흘째 진행했다. 이날까지 전체 440㎡ 중 256㎡를 절단해 58%를 마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민증 발급으로 털미 잡힌 '세탁소 도둑'

범행 현장 지문 9점 찾았지만 당시 14살로 지문 등록 안돼 2년전 주민증 지문등록 적발

광주광산경찰청은 지난 2012년 6월 7일 "밤사이 세탁소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광산구 박모(44)씨의 세탁소로 출동했다. 절도범은 실외기 배관 통로 창문을 부수고 세탁소에 침입,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을 꺼낸 뒤 종적을 감춘 뒤였다.

세탁소 주인 박씨는 "흙처럼 돈은 6만원 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걸 훔치려고 창문을 깨뜨리고 세탁소를 어지럽히고 분해서 못살겠다. 형사님이 꼭 좀 붙잡아달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세탁소를 샅샅이 훑은 끝에 가게 안쪽 유리면과 환풍구 덮개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9점을 찾아냈다. 경찰이 신원을 특정 짓는 지문을 다수 확보해 경찰청 과학수

사센터에 보내면서 수사는 금물살을 탔고 범인 검거는 초읽기에 들어간 듯했다.

하지만 얼마 뒤 실망스런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을 검색해보니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세탁소 절도범은 5년이 지나 손쉽게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모(19)군이 주민등록증을 2년 전 발급받으며 지문 등록을 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경찰청이 미세사건 현장 지문 재검색하는 과정에서 광산구 세탁소 절도 용의자 지문과 일치한 지문이 신규 등록된 사실을 지난달 12일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2일 지문 감정 결과와 피의자 조사를 토대로 김군을 야간건조물점입점도 혐의로 입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이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공개채용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본관 현관에 '근조(謹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왼쪽). 상무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28일 교육청 앞에서 초등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육청이 이어지기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교육청은 '집회 명소'와 '플래카드 천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교육청 앞은 오늘도 시위 중

돌봄전담사·학교 통폐합 문제로 연일 집회

광주시교육청이 '집회 명소'가 되고 있다. 교육청 본관 현관에 20일 넘게 걸거됐고 돌봄전담사(시간제) 134명에 대한 공개 채용 계획을 반대하는 시위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시위와 접거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초·중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도 꾸준히 진행되면서 '단골 집회 장소'로 바뀌었다.

광주교육청 본관 건물 현관은 2일, 돌봄전담사들에게 걸거된 상태다. 현관 앞에는 '근조(謹弔)'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천이 둘러쳐져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이 곳에서 머무르며 134명에 대한 공개 채용 계획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벌써 22일째다.

출근 시간 전후로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공개 채용 반대 시위로 20일 넘게 진

행중이다. 이들의 무단 건물 진입을 우려, 교육청은 한 곳만 열어놓은 채 나머지 출입구를 모두 막았고 직원들이 출입구 앞에서 '불침번'을 서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도 불가피하게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입로 주변 도로변은 '철문봉쇄 해고 통고 반민날치기' 등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등이 붙인 자극적 내용의 플래카드로 둘러싸였다. 최근에는 교육청이 추진중인 초·중학교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시위가 집중되고 있다.

당장, 상무중 학부모 20여명은 지난달 28일 어깨띠를 두르고 '통폐합을 폐기하

라' 등 피켓을 들고 교육청을 찾아 치평중으로의 통합을 반대한다며 교육청 주변을 돌며 목청을 높였다. 삼정초 학부모들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청이 이어지기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교육청은 '집회 명소'와 '플래카드 천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제안과 관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출근 강조해온 원칙을 고수할 지, 돌봄전담사(시간제) 134명에 대한 공개 채용 계획을 변경할 지 조미의 관심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실습 중 제자들 추행 혐의 교수 입건

광주광산경찰청은 실습 중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광주 모 대학 A교수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습 교육을 하며 여학생 21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교수가 실습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몸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신체 접촉을 수반

하는 실습이어서 접촉을 했을 뿐 제자들을 성추행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대학 측은 올해 학기 초 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경찰 조사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의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하수관로 공사하던 40대 흙더미 무너져 사망

2일 오전 10시16분께 장성군 장성읍 한 식당 앞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을 하던 차모(40)씨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차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하고 있던 3명은

흙더미가 무너진 장소에 있지 않아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차씨가 2m 깊이 구덩이에서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잠면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성=김용호기자 yongho@

"해병대를 무시하나"며 술 마시다 흉기로 지인 협박



○... "해병대를 무시한다"며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 2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 1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신모(55)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

○...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신씨가 해병대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같이 있던 일행 4명과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해져 이 같은 짓을 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